



남제골 벽화

쉬엄쉬엄 골목여행 새록새록 추억생각



철도마을 벽화

순천 골목길 투어

순천에는 정원만 있는 게 아니다. 한가위 연휴를 맞아 순천을 찾았다면, 아가리한 골목을 도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순천에는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도심 속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다. 순천만, 낙안읍성, 선암사 등 유명한 곳에서의 느낌과는 다른 아가리지기한 매력을 함께할 수 있다.

남제골 벽화마을 천천히 이 구경 저 구경 여유롭게
청수골 달빛마을 생태·문화 음미해 볼까 편안하네

문화의 거리 한옥골방에 공방 즐비 정겨웁네
철도 관사마을 죽도봉공원·동천길 그리웁네

◇남제골 쉬엄쉬엄 마을여행=순천시 남정동 남제골 벽화마을은 순천만 정원 박물관과 가까이 있어 골목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남제골은 예전에 길 가운데 실개천이 흐르고 학생들의 자취방이 많았다. 현재는 실개천이 복개되고 자취방도 사라졌지만 출출한 소리를 들으며 마을우물이 있어 도심속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남제골 쉬엄쉬엄 마을 여행’은 누구나 시인이 돼 쉬엄쉬엄 걸을 수 있도록 골목길에 흔을 붙여 넣었다.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 어른들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추억이 있어 정을 느끼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골목여행이 된다.

남제골 골목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어렵다. 집집마다 설치된 개성 넘치는 우편함을 구경하고, ‘에코 도시락’ 캐릭터인 당근, 돈가스, 김밥, 김치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을기업에서 만드는 ‘에코 도시락’은 산야초 발효 도시락, 에코 약선 도시락 등 다양하다.

시는 2011년 안전행정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순천지역 작가, 대학생, 미술단체,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참가 공모를 실시하고 남제골 현장벽화를 설치했다.

이후 지역작가와 주민 참여로 완성도 있

는 여행코스를 완성하고 주민 소통의 공간인 공동우물 복원, 이야기가 있는 마을 안내판을 부착했다.

◇향동 청수골 달빛마을=순천시 향동에 위치한 ‘청수골 달빛마을’은 향교를 찾은 선비들이 말에서 내리는(下馬) 자리에서 ‘공마당’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공마당은 선교사들이 세운 매산학교 운동장과 함께 순천에 근대 체육이 시작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공마당이라는 이름은 순천 향교의 소유지로 언제부터인가 ‘오랫동안 내버려둔 빈 마당’이었던 것이 최근에 ‘공을 차는 마당’으로 인식돼 널리 불리게 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창조마을 만들기로 ‘청수골 달빛마을’을 조성했다.

청수골 달빛마을내 통나무 벤치와 벽화, 달마루 정원 등에서 생태와 문화를 음미하며 조용하게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순천 문화의 거리=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순천 문화의 거리’ 여행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행동, 영동, 금곡동, 옥천동 일대의 골목길은 쉼터가 쌓인 돌담이 있는 공간이다.

문화의 거리 첫 출발지인 금곡길에 있는 한옥으로 지어진 작은 도서관 ‘한옥 골방’은 꼭 찾아봐야 할 공간이다. 한옥골방은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람을 모이는 곳이다.

문화의 거리에는 오래된 거리담길 특색 있는 가게들이 눈길을 끈다.

공방, 한지공예점, 여러 가지 공예를 접할 수 있는 토탈 공방,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그리운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 가게, 고서화 및 서예 골동품 취급 가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문화의 거리 골목길을 들어서면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느낌이 든다.

도심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순천의 다

른 모습을 가득 안고 우리들의 추억을 소중하게 담아내고 있는 곳이다.

문화의 거리는 2014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심재생 선도지구 구역 안에 포함되어 도시재생 사업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에는 빈 건물을 활용한 예술학교와 ‘에코지오 창작촌’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조곡동 철도 관사 마을 조성=조곡동은 봉화산이 주민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아늑한 동네다.

봉화산 자락에 동천변에 자리한 조곡동은 죽도봉을 경계로 독실마을과 재경골로 나뉜다. 죽도봉에는 순천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팔마탑, 강남정, 연자루, 환선정이 자리하고 있다.

또 순천시를 조망할 수 있는 죽도봉 공원과 동천 벚꽃길, 장대공원은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다.

조곡동에는 순천역, 동순천역, 금수탑, 철도 관사, 철도 운동장(조곡생활체육공원) 등의 철도 관련 자원도 있다. 순천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조곡동 철도관사 마을은 소중한 근대 역사 자원이다.

관사마을에는 철도벽화, 철도마을 우편함 등이 있으며 철도를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는 문화공간인 카페 ‘기적소리’가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남제골 우편함



향동 청수골



문화의 거리



철도 문화마을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새 이름 지어주세요

순천시, 26일까지 공모

순천시가 우리나라 최초 한옥형 유스호스텔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이하 에코촌·사진)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순천시는 ‘에코촌’ 명칭이 한옥 숙박시설임을 알리기에 부족하고 길이가 길어 발음이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전통 한옥 숙박시설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

새 이름은 ‘순천’과 ‘전통한옥 숙박시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에코촌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시는 에코촌 방문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5명을 선정, 부상으로 7만~25만원 상당의 에코촌 숙박권(조식 포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4월 준공된 에코촌은 대지 9684㎡에 연면적 1820㎡ 규모로 건립된 한옥 숙박시설이다. 4개 동 43개방을 갖춰 청소년 150명(성인 8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 에코관(식당·다목적실), 생태관, 전통씨름장 등이 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순천대 박물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행기관 선정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4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하반기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총 39개 선정기관 가운데 전라도 소재 박물관은 순천대 박물관이 유일하다.

순천대 박물관이 초등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5주간 진행되는 ‘원시시대로 고고성~!’은 대학 박물관

과 캠퍼스내에 있는 유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원시인들의 생활을 체험해보면서 원시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하는 체험중심 프로그램이다.

1기 프로그램은 순천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난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된다. 이어 2기(10월 4일~11월 1일)와 3기(11월 8일~12월 6일)는 추후 개별신청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는 (061-750-5042) /순천=예정열기자 jyj@

순천경찰 ‘성폭력 전담수사팀’ 발대식

순천경찰이 각종 성범죄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지난 1일 기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수사과 등으로 이원화된 성폭력 수사체계를 일원화·전문화해 ‘성폭력 전담수사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전담수사팀은 수사, 형사와 관련 수사경험이 풍부한 경찰관 가운데 남자경찰관 3명, 여자경찰관 1명으로 구성됐다. 최삼동 서장은 “전담 수사팀은 관내

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해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갖추고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범인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며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성범죄자가 없는 안전한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